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변화 및 영향요인

차유진<sup>1\*</sup>, 김세연<sup>2</sup>

<sup>1</sup>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 <sup>2</sup>우석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Changes in Perception of Social Safety among Workers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and Influencing Factors

Yu-Jin Cha<sup>1\*</sup>, Se-Yun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eMyu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WooS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전후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상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 2018년과 2022년 사회조사의 원자료는 SPSS 프로그램(version 18)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와 ANOVA를 이용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사회의 불안 요인 순위 비교는 빈도분석(평균 산출) 후 순위를 선정하였고,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2022년보다 안전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신종 질병 안전도에서 2018년보다 안전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범죄 요인이 불안 요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이 다음으로 불안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에는 신종 질병 요인이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범죄, 경제적 위기, 인재 등 요인이 불안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에는 건강평가와 학생 자녀여부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2년은 가구수입과 건강평가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와 같은 심리적 문제는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사회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levels of social safety perception among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workers both before and after the onset of COVID-19. Additionally,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factors that influence this perception. The analysis employed the SPSS program (version 18) to examine the frequency of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survey participants based on raw data from the 2018 and 2020 Social Surveys. The analysis established statistical significance through cross-tabulation, t-tests, and ANOVA. The ranking of social anxiety factors was determined via frequency analysis (averaging), follow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social safety. In 2018, safety perception exceeded that of 2022 in most areas, whereas in 2022, safety perception surpassed that of 2018 in the context of new disease safety. Crime-related factors were the primary sources of anxiety in 2018, follow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human disaster, and economic risks. Conversely, new disease-related factors emerged as the most prominent concerns in 2022, followed by crime, economic crises, and human disaster factors. The study identified that in 2018, the perception of social safety was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health evaluations and whether participants had children. In 2022, household income and health evaluations were found to impact the perception of social safety. The study underscores that psychological concerns regarding social safety among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workers directly influence their job performance, with ramifications for medical and social welfare services. Consequently, bolstering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se workers is imperati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hold significance in furnishing fundament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 precise and professional social safety system catering to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workers.

**Keywords** : COVID-19,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Social Anxiety, Social Safety, Social Surveys

본 논문은 2023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u-Jin Cha(SeMyung Univ.)

email: occujin@semyung.ac.kr

Received August 17, 2023

Revised September 11,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Published November 30, 202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 위험은 특정한 위험원이 사회수준으로 확대되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되며 원인, 전개과정 및 피해의 결과가 국민의 생활과 사회의 존립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나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1].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 주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들을 만족시켜 주는 안전한 사회를 요구한다[2]. 안전 의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 및 감정 판단에 따라 복잡하고 특수하므로 사회 계층별 상황과 생애주기별로 안전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3]. 인간 정체성을 규정하는 다양한 직업군 중에서 현재의 위험직업군 종사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매개된 생물학적, 사회적 위험요소로부터 개인의 실존적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4].

COVID-19 대유행을 계기로 신종 질병에 대한 사회 안전도, 재난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5].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촉하게 일어나는 재난은 인간의 의지와 경험으로 사회위기관리시스템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6]. 안전에 대한 의식은 사고와 위험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7]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 중의 하나로 여겨지므로 중요하다[8].

COVID-19의 출현은 의료보건, 공공 안보, 경제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위협을 끼쳤으며, 미디어에서 연일 보도되는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인해 대중은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노출되었다[11]. 우리나라는 COVID-19에 대응하여, 조기에 광범위한 진단 검사의 실시, 확진자의 조기 격리와 치료 등을 통해 확진자의 수를 비교적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었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치료 비용의 최소화 등으로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였다[9,10].

보건의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 보건의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등이 포함된다[12]. 2019년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자료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의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으로 보건의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3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3].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의하면 보건의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은 보건의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의업은 인체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병원과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보건의업으로 구성된다[14]. 사회복지직은 이용인과 대면적 관계 속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노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군에 속해 있다[15]. 따라서, 보건의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업군에서 사회안전 인식이 다른 구성원들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효과적인 사회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Park과 Jeon[16]의 연구는 2018년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 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건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사회안전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 등[17]의 연구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사회적 위험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보화 수준과 매스 미디어 차별 인식은 사회 위험 인식을 높이며, 사회적 신뢰와 네트워크는 사회 위험 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18]의 연구는 1인 가구의 사회안전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로 사회안전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자본은 사회안전 인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COVID-19의 전과 후의 사회안전 인식 수준과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였거나, 특정 직업군인 보건의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이 다른 구성원들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 2018년과 2022년 사회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COVID-19 전후의 보건의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상태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보건의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사회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 소속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제공하는 2018년과 2022년 사회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사회안전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2차 분석 연구이다. 사회조사는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 파악을 위해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조사이다[19].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부문 5개 부문과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부문의 5개 부문을 매년 교대로 조사하고 있는데[3], 본 연구는 2018년과 2022년에 조사된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부문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2 변수설정

### 2.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원자료에서 조사한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지역구분, 혼인상태, 맞벌이, 학생 자녀유무, 임금근로자구분, 가구소득, 타인준법수준, 건강 평가, 일반적 스트레스 그리고 주관적 만족감을 선정하였다.

### 2.2.2 사회 안전 인식도

안전관련 지표(전반적사회안전도, 5년 전과 비교한 사회안전상태변화, 5년 후 사회안전상태변화)와 영역별 안전에 대한 인식도로 구성되었다. 안전관련 지표 중 전반적 사회안전 인식도는 '매우 안전(1점)'에서 '매우 불안(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전 인식도는 10개 영역별로 위험 요소들에 대한 불안도를 나타내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 '매우 안전(1점)'부터 '매우 불안(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위험요소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0].

##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version 18)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안전 인식도 13개 항목별 차이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비교분석은 교차분석과 t-test, ANOVA를 이용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사회의 불안 요인 순위 비교는 빈도분석(평균 산출) 후 순위를 선정하였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VIF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 발생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모든 검증은 유의수준  $p < .05$ 로 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수집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성이 1,332명(83.0%)으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표본의 평균 연령은 46.55세이며 40-49세가 372명(23.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4년제 미만 대학이 443명(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은 동이 1,257명(78.4%)으로 읍면보다 많았다.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1,005명(6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가 892명(55.6%)으로 비맞벌이 보다 많았다. 학생 자녀 유무에서는 무가 1,079명(67.3%)으로 많았으며 임금근로자구분에서는 상용직이 1,183명(73.8%)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에서는 100~200만원이 160명(10.0%)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 준법 수준은 보통이다가 656명(40.9%)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 평가는 좋은 편이다가 703명(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적 스트레스는 느끼는 편이다가 883명(55.0%)으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만족감은 보통이 668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 안전 인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연령, 교육정도, 타인준법수준, 건강평가, 일반적 스트레스, 주관적 만족감에 따라 사회 안전 인식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성이 1,535명(80.8%)으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표본의 평균 연령은 51.03세이며 60세 이상이 623명(32.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가 469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은 동이 1,442명(75.9%)으로 읍면보다 많았다.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1,168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가 193명으로 비맞벌이 보다 많았다. 학생 자녀 유무에서는 무가 1,448명(76.2%)으로 많았으며 임금근로자구분에서는 상용직이 1,318명(69.4%)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에서는 200~300만원이 333명(17.5%)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 준법 수준은 비교적 잘 지킨다가 920명(48.4%)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 평가는 좋은 편이다가 823명(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적 스트레스는 느끼는 편이다가 836명(44.0%)으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만족감은 보통이 823명(43.3%)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 안전 인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 상태, 학생 자녀유무, 가구소득, 건강평가, 일반적 스트레스, 주관적 만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2018		2022	
		N	%	N	%
Total		1604	100.0	1900	100.0
Gender	Male	272	17.0	365	19.2
	Female	1332	83.0	1535	80.8
	t-value	-1.869		-3.473***	
Age (years)	M(SD)	46.55	(15.009)	51.03	(16.591)
	≤19	2	0.1	2	0.1
	20-29	250	15.6	254	13.4
	30-39	310	19.3	276	14.5
	40-49	372	23.2	319	16.8
	50-59	353	22.0	426	22.4
	Over 60	317	19.8	623	32.8
	F-value	2.582*		4.647***	
Education	≤Middle school	257	16.0	396	20.9
	High school	376	23.4	469	24.7
	College degree	443	27.6	413	21.7
	University graduate	399	24.9	473	24.9
	Master's graduate school	100	6.2	114	6.0
	PhD graduate school	29	1.8	35	1.8
F-value	2.524*		5.316***		
Region	Dong	1257	78.4	1442	75.9
	Ep-myun	347	21.6	458	24.1
	t-value	0.608		-0.948	
Marital status	Single	343	21.4	373	19.6
	Married	1005	62.7	1168	61.5
	Bereaved	151	9.4	211	11.1
	Divorced	105	6.5	148	7.8
	F-value	1.577		2.866*	
Dual-income household	Dual-income household	892	55.6	193	10.2
	Single-income household	293	18.3	165	8.7
	t-value	0.384		0.207	
Student's child	Yes	525	32.7	452	23.8
	No	1079	67.3	1448	76.2
	t-value	-1.888		-2.872**	
Type of employment	Permanent employee	1183	73.8	1318	69.4
	Contract worker	290	18.1	463	24.4
	Casual labor	38	2.4	25	1.3
	F-value	2.081		0.016	
Household income/month (KRW 10,000)	<100	107	6.7	192	10.1
	100≤-<200	160	10	260	13.7
	200≤-<300	108	6.7	333	17.5
	300≤-<400	57	3.6	284	14.9
	400≤-<500	39	2.4	249	13.1
	500≤-<600	37	2.3	187	9.8
	≥600	91	5.7	395	20.8
F-value	0.527		5.099***		
Level of others law-abiding	Very high	69	4.3	175	9.2
	High	632	39.4	920	48.4
	Moderate	656	40.9	667	35.1
	Low	237	14.8	132	6.9
	Very low	10	0.6	6	0.3
F-value	19.211***		21.421***		
Subjective health condition	Very good	119	7.4	163	8.6
	Good	703	43.8	823	43.3
	Moderate	579	36.1	716	37.7
	Bad	186	11.6	190	10
	Very bad	17	1.1	8	0.4
F-value	5.587***		13.366***		
General stress	A lot of	87	5.4	80	4.2
	Moderately	883	55	836	44
	Not	569	35.5	830	43.7
	Not at all	65	4.1	154	8.1
	F-value	6.908***		11.333***	
Personal satisfaction	Very good	161	10	216	11.4
	Slightly satisfied	554	34.5	619	32.6
	Commonly	668	41.6	823	43.3
	Slightly dissatisfied	176	11	215	11.3
	Very unsatisfied	45	2.8	27	1.4
F-value	5.609***		17.250***		

\*p<.05, \*\*p<.01, \*\*\*p<.001

감에 따라 사회 안전 인식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3.2 사회 각 영역의 연도별 안전 인식도

본 연구에서는 2018년과 2022년 사회 각 영역의 안전 인식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8년에는 범죄 안전도(3.59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신종 질병 안전도(3.52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22년 사회 각 영역의 안전 인식도 간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화재 안전도는 2018년과 2022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안전 인식도는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8년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2022년보다 안전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신종 질병 안전도에서 2018년보다 안전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afety perception by year in each area of society (M±S.D)

Classification	2018	2022	t-value
National security	3.08±.922	2.84±.960	7.587***
Natural disasters	3.31±.850	2.87±.888	14.750***
Building & Facility	3.22±.849	2.90±.884	10.714***
Car accident	3.53±.794	3.17±.882	12.607***
Fire	3.21±.801	3.16±.887	1.918
Food hygiene	3.18±.875	2.77±.864	14.056***
Foodstuffs security	2.84±.867	2.79±.909	1.590
Information security	3.41±.855	3.18±.966	7.532***
Contagion epidemic	3.43±.848	3.52±1.010	-2.830**
Crime	3.59±.906	3.30±.992	9.123***
Overall social stability	3.26±.767	2.95±.841	11.235***
Nowadays Vs. 5 years ago	3.13±.892	3.03±.909	3.327***
Nowadays Vs. 5 years after	3.26±1.236	3.16±1.204	2.466*

p<.05, \*\*p<.01, \*\*\*p<.001

### 3.3 사회의 불안 요인 순위 비교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불안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8년에는 범죄 요인이 불안 요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이 다음으로 불안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에는 신종 질병 요인이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범죄, 경제적 위기, 인재 등 요인이 불안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신종 질병(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불안 요인은 2018년에는 9위로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가장 적게 언급된 요인 중 하나이지만 2022년에는 1위로

사회 불안 요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신종 질병 코로나19를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rankings of social anxiety factors

Ranking	2018	2022
1	Crime(kidnapping, murder, robbery, sexual violence, etc.)	New diseases(new viruses, etc.)
2	Environmental pollution(water, air, soil, marine pollution, etc.)	Crime(kidnapping, murder, robbery, sexual violence, etc.)
3	Man-made disasters(fire, traffic accident, building collapse, etc.)	Economic risks(corporate bankruptcy, unemployment, etc.)
4	Economic risks(corporate bankruptcy, unemployment, etc.)	Man-made disasters(fire, traffic accident, building collapse, etc.)
5	National security issues(war, terrorism, North Korean nuclear issue, etc.)	National security issues(war, terrorism, North Korean nuclear issue, etc.)
6	Lack of morality(corruption, etc.)	Environmental pollution(water, air, soil, marine pollution, etc.)
7	Natural disasters(typhoons, floods, earthquakes, etc.)	Lack of morality(corruption, etc.)
8	Class conflict due to gap between rich and poor	Class conflict due to gap between rich and poor
9	New diseases(new viruses, etc.)	Natural disasters(typhoons, floods, earthquakes, etc.)
10	etc.	etc.

### 3.4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8년에는 건강평가( $\beta=.250$ ,  $p<0.01$ )와 학생 자녀여부( $\beta=-.191$ ,  $p<0.05$ )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평가가 나쁠수록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2년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수입( $\beta=-.122$ ,  $p<0.01$ )과 건강평가( $\beta=.211$ ,  $p<0.001$ )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수입이 낮을수록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평가가 나쁠수록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social safety

Factors	2018			2022		
	$\beta$	t	VIF	$\beta$	t	VIF
Age	-.086	-1.061	1.195	.003	.071	1.281
Education	.036	.387	1.548	-.069	-1.648	1.370
Household income	.053	.578	1.532	-.122**	-3.018	1.262
Region	.009	.114	1.170	.022	.608	1.052
Residential occupancy type	-.001	-.008	1.135	.070	1.885	1.053
Subjective health condition	.250**	3.120	1.179	.211***	5.688	1.064
Number of people in household	.041	.453	1.464	.031	.661	1.687
Current status of housework sharing	.007	.085	1.077	-.060	-1.606	1.084
Student's child	-.191*	-2.182	1.408	-.083	-1.814	1.616
Cohabitation with parents	.120	1.559	1.084	.021	.574	1.061
R <sup>2</sup>	.099			.107		
Adjusted R <sup>2</sup>	.044			.094		
F(p)	1.809			8.281***		

\*p<.05, \*\*p<.01,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2018년과 2022년 사회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COVID-19 전후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상태 요인을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2018년과 2022년 사회 각 영역의 안전 인식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8년에는 범죄 안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신종 질병 안전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COVID-19 전후로 차이를 보였다. 즉 2018년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2022년보다 안전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신종 질병 안전도에서 2018년보다 안전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불안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8년에는 범죄 요인이 불안 요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이 다음으로 불안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에는 신종 질병 요인이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범죄, 경제적 위기, 인재 등 요인이 불안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신종 질병(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불안 요인은 2018년에는 9위로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가장 적게 언급된 요인 중 하나이지만 2022년에는 1위로 사회의 불안 요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요인이 되었다.

COVID-19로 인한 감염질환은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바이러스 등에서 비롯된 질병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계를 위해 여러 위험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불확실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4]. Mao 등[21]은 감염병 이후 동반되는 심리적 문제를 연구하였는데 불안, 두려움, 좌절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같은 정신적 후유증이 1년 후까지도 지속된다고 하였다. COVID-19이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불안과 우울의 요인을 살펴보면, 감정노동, 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신체 질환, 안전관리행위 등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환자와 직접부서에서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감염 전파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23]. COVID-19의 높은 전파력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일반인들보다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거부나,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고[24], 이러한 사회적인 거부나 낙인 등 심리적 고통을 받아 신종 질병 요인이 가장 높은 불안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전반적사회안전도', '5년 전과 비교한 사회안전상태변화'와 '5년 후 사회안전상태변화'에서 모두 2018년에 비해 2022년도에 낮은 점수를 보여 미래의 안전상태변화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Kang[2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은 COVID-19로 인한 감염질환에 대응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따르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거리를 유지하며, 이미 개발된 백신이 전염력을 낮추고 질병의 중증화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미래의 안전상태변화를 더 긍정적으로 여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8년에는 건강 평가와 학생 자녀여부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OVID-19 이전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건강평가가 나쁠수록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OVID-19 이후 2022년에는 가구 수입과 건강 평가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수입이 낮을수록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평가가 나쁠수록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a[25]의 연구에서 성별과 함께 자녀 수, 결혼 여부 등도 일반인들의 위험 지각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위험 지각은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Kim[26]의 연구는 소득수준에 의해서도 위험 인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소득수준이 낮으면 경우에 따라 위험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기도 한다. 사회취약계층에서 사회 위험과 불안을 더 느낀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9]. 즉 가난한 집단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무력감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범죄의 두려움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27,28], 또한 범죄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육체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회복이 힘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의 부재 또한 이 집단의 범죄의 두려움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29].

현대사회는 삶의 질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이다[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와 같은 심리적 문제는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정책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취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30].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시민사회, 지방정부 그리고 국가 등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과 2022년 사회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변수 설정에 있어 제한점이 있었다. 둘째,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이질적인 집단이나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추후에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뿐만 아니라 심층 면담 등의 다양한 조사방법을 함께 실시할 뿐만 아니라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을 구분하여 사회안전 인식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좀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사회안전관리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8년과 2022년도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비교 연구는 COVID-19 전후 차이를 비교하기에 시기적절하였으나 2023년 8월 이후 COVID-19는 전염병 4등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후속 연구는 시기적 한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대표성을 확보한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COVID-19 전후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상태 요인을 탐구하고 이를 근거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8년과 2022년 사회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COVID-19 전후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상태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최근의 추세를 파악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2018년과 2022년 사회 각 영역의 안전 인식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8년에는 범죄 안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신종 질병 안전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COVID-19 전후로 차이를 보였다. 2018년에는 범죄 요인이 불안 요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이 다음으로 불안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에는 신종 질병 요인이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범죄, 경제적 위기, 인재 등 요인이 불안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신종 질병(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불안 요인은 2018년에는 9위로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가장 적게 언급된 요인 중 하나이지만 2022년에는 1위로 사회의 불안 요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요인이 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8년에는 건강평가와 학생 자녀여부, 즉 건강평가가 나쁠수록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2년에는 가구수입과 건강평가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수입이 낮을수록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평가가 나쁠수록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효과적인 사회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D. J. Lim, "The cognitive level on social safety and its influential factors in South Korea: Focused on local citizens and civil servant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ol.20, No.1, pp.89-114, 2016.
- [2] J. Y. Jung, Y. C. Young, "Urban environmental factor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crime safety",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Vol., No.9, pp.9-16, 2020.
- [3] J. O. Kim, "Social safety perception and influencing factors by life cycle of adult",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Vol.13, No.1, pp.137-153, 2021. DOI: <https://dx.doi.org/10.52902/kjisc.2021.13.137>
- [4] W. K. Min, K. S. H., "A social psychological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culture in the era of the covid-19 pandemic: The concepts of collective memory and civic competence", *The Institute of Humanities at Soonchunhyang University*, Vol.40, No.2, pp.57-84, 2021. DOI: <https://dx.doi.org/10.35222/IHSU.2021.40.2.57>
- [5] J. H. Ryu, Y. M. Kim, J. S. Kim,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the social welfare practice in social disasters: Focusing on qualitative research in Korea", *Research of Case Management*, Vol.13, No.3, pp.27-55, 2022.
- [6] Y. C. Choung, I. S. Choy, Y. G. Bae, "Social security aimed disaster response policy based on big data applic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20, No.4, pp.683-690, 2016. DOI: <https://dx.doi.org/10.6109/jkiice.2016.20.4.683>
- [7] Y. M. Yoon, K. S. Sung, E. J. Kim,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practicing behavior and perception about safety management service system of university campu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Vol.21, No.6, pp.1033-1042, 2014. DOI: <https://dx.doi.org/10.21086/ksles.2014.12.21.6.1033>
- [8] Y. M. Lee, H. S. Jang,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ecurity in the local community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and the disorder model-", *Journal of Korean Ciminological Association*, Vol.9, No.1, pp.159-185, 2015.
- [9] J. O. Kim, Y. H. Park,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and social safety perception towards the new diseases and influencing factors : Focusing on 2018 and 2020", *Social Survey*, Vol.15, No.1, pp.25-39, 2021. DOI: <https://dx.doi.org/10.12811/ksesm.2021.15.1.025>
- [10] J. G. You, "Lessons from south Korea's covid-19 policy respons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50, No.6-7, pp.801-808, 2020. DOI: <https://dx.doi.org/10.1177/0275074020943708>
- [11] D. H. Lee, Y. J. Kim, D. H. Lee, H. H. Hwang, S. K. Nam, J. Y. Kim, "The influence of public fear, and psycho-social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32, No.4, pp.2119-2156, 2020. DOI: <https://dx.doi.org/10.23844/kjcp.2020.11.32.4.2119>
- [12] S. R. An, T. J. Ha, "Changes in industri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jobs",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Vol.431, pp.1-12, 2022. DOI: <https://dx.doi.org/10.23064/2022.11.431>
- [13] S. Y. Han, S. H. Hwang, "Fostering and supporting plans for Korea's knowledge service industry",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Vol.35, No.4, pp.149-164, 2021. DOI: <https://dx.doi.org/10.24210/kapm.2021.35.4.008>
- [14] Statistics Korea,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tatistics Korea Daejeon, 2017.
- [15] S. G. Han, "A study on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labor in Korea", *Journal of Labor Studies*, Vol.32, pp.5-27, 2016.
- [16] S. E. Park, J. H. Jeon, "A study on social safety perception and its influential factors for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11, pp.218-226, 2019. DOI: <https://dx.doi.org/10.22156/CS4SMB.2019.9.11.218>
- [17] S. T. An, J. S. Jeong, S. D. Chung, "A study on the



- factors that affect the perception of risk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The effect of media environment, age-friendly environment, and social capital, and the moderating role of age",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pp.40-77, 2019.  
DOI: <https://dx.doi.org/10.22876/kjbr.2019.108.002>
- [18] S. M. Kim, "Mediation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afe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ne-pers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3, pp.615-628, 2019.  
DOI: <https://dx.doi.org/10.35873/ajmahs.2019.9.3.058>
- [19] C. H. Kang, T. K. Park, S. Y. Lee, "A study of citizens' giving behavior by income level: Estimation of probability and amount of secular giving",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24, No.1, pp.1-31, 2017.  
DOI: <https://dx.doi.org/10.17000/kspr.24.1.201703.1>
- [20] S. D. Chung, E. C. Oh, G. E. Kim, "Age differences in safety perception: A comparison of babyboomer, pre-elderly, an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11, No.3, pp.75-81, 2011.
- [21] R. Mao, Y. Qiu, J. S. He, J. Y. Tan, X. H. Li, J. Liang, J. Shen, L. R. Zhu, Y. Chen, M. Iacucci, S. C. Ng, S. Ghosh, M. H. Chen, "Manifestations and prognosis of gastrointestinal and liver involvement in patients with covid-19: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ancet Gastroenterol Hepatol*, Vol.5, No.7, pp.667-678, 2020.  
DOI: [https://dx.doi.org/10.1016/s2468-1253\(20\)30126-6](https://dx.doi.org/10.1016/s2468-1253(20)30126-6)
- [22] H. G. Kang, *A study on the operation of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the response of complex disaster in Korea*,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uwon, Hwaseong, 2020.
- [23] S. J. Hae, C. Y. Park, S. M. Cho, G. J. Sa, "Association between covid-19 outbreak and emotional stress in healthcare worker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Conference*, Korea, pp.85-86, November 2020.
- [24] Y. J. Jeong, S. Y. Choi, "The relating factors of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hospital workers during covid-19 era",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3, pp.2389-2404, 2022.
- [25] Y. J. Cha, *Environmental risk analysis: Factors influencing nuclear risk perception and policy implications*, Master's thesi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1997.
- [26] Y. Kim, "New social risks, women's poverty, and poverty polic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40, No.2, pp.189-226, 2006.
- [27] A. H. Clarke, M. J. Lewis,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An exploratory stud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22, No.1, pp.49-62, 1982.
- [28] J. H. Ryu, S. M. Jung, "A study on crime risk perception of community resident -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specific fear of crime", *Crisisonomy*, Vol.7, No.3, pp.1-24, 2011.
- [29] B. D. Lee, J. G. Kim, Y. H. Yu, "Multi-level modeling analysis on factors of fear of crime: Focusing on crime vulnerability and social disorganiz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22, No.4, pp.49-70, 2015.
- [30] H. S. Lyu,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safety rights of the vulnerable", *Basic Research Project*, Vol.2018, pp.4365-4805, 2018.

차 유 진(Yu-Jin Cha)

[종신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과 학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 학박사)
- 2019년 3월 ~ 2011년 12월 :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책사무 국장
- 2012년 9월 ~ 현재 :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신경계작업치료, 노인작업치료

김 세 연(Se-Yun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특수교육전공 (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과 학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 학박사)
- 2009년 3월 ~ 2019년 2월 : 우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작업치료, 아동작업치료